



역시 번개 볼트! 100m 2연패... "내 목표는 3관왕"

9초63...올림픽 新 100m를 41걸음에 뛰었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6일 오전(한국시간) 열린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올림픽 신기록(9초63)을 세우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한 뒤 특유의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런던(영국) | UPI연합뉴스

“신기록은 블레이크의 자극 덕분 200-400m 계주서도 우승할 것”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우사인 볼트(자메이카)가 6일 오전(한국시간) 런던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육상 남자 100m 결승에서 9초63으로 올림픽 신기록을 세우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는 한 발에 2m40cm 이상을 뛴 것으로, 마흔 한번(41)의 걸음으로 100m에 다다른 기록이다. 2008베이징올림픽에 이어 100m 2연패, 올림픽 100m 2연패는 1984LA올림픽과 1988서울올림픽에서 연속 제

패한 칼 루이스(미국)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볼트는 강력한 우승후보였지만 올림픽을 앞두고 2연패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지난해 대구육상선수권에서는 부정출발로 실격됐고, 올해 기록에서는 팀 동료 요한 블레이크(자메이카)에게 밀리는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볼트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우려를 기록으로 불식시켰다. “런던에서 9초4대를 기록하겠다”던 목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베이징올림픽 우승 당시 기록한 9초69(올림픽 기록)를 0.06초 단축했다. 훈련 파트너에서 경쟁자로 변신한 요한 블레이크의 성장이 자극제가 됐다. 볼트는 “올림픽대표 선발전 때 블레이크가 나를 두 차례 이

긴 것이 나를 일깨웠다”면서 “마치 블레이크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데, 넌 준비했니’하고 묻는 것 같았다. 그 말에 진정으로 훈련에 다시 집중했고, 철저히 준비했다”고 우승의 숨은 원동력을 털어놨다. 100m 2연패에 성공한 볼트의 다음 목표는 10일(오전 4시45분 예정) 펼쳐지는 200m(예선 7일 오후부터)다. 그는 “전설이 되기 위해선 200m 우승이 필요하다. 그것은 나의 메인이벤트가 될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볼트는 베이징올림픽에서 100m와 200m, 400m(100×4)계주에서 정상에 오르며 3관왕에 올랐다. 올림픽 2회 연속 3관왕 등극을 위해선 200m 우승이 반드시 필요하다.

분위기로는 2관왕 등극이 유력하다. 볼트는 2009년 8월 베를린세계선수권에서 100m 우승 당시 9초58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한 뒤 이후 3년 동안 9초8대를 기록한 적이 없다. 이번 올림픽에서 절정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고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100m에서도 보여줬듯이 블레이크의 도전이 만만치 않다. 200m는 100m보다 더 힘든 싸움이 될 전망이다. 볼트의 200m 최고기록은 19초19, 블레이크는 19초25다. 말 그대로 간발의 차다. 볼트에게 밀려 100m 은메달(9초75)을 딴 블레이크는 “가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는 것이라 실망하지 않았다. 200m는 더 재미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트위터 @na1872

원성열 기자

편집 | 심승수 기자 sss@donga.com 트위터@simss23

‘무관의 제왕’ 머레이, 조국에서 한 풀다

페테러에 3-0 완승...웍블던 패 설욕 영국, 104년 만에 남자단식 금메달 “내 생애 최고의 승리” 환희의 눈물

영국의 앤디 머레이(25)가 올림픽 테니스 황제 자리에 올랐다. 머레이는 5일(현지시간) 웍블던 올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숙적 로저 페테러(31·스위스)에 세트스코어 3-0(6-2 6-1 6-4)의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머레이의 금메달 획득은 자신에게나, 조국 영국에게나 의미 있는 일이었다. 세계랭킹 4위인 그는 정상급의 실력을 갖췄지만 메이저대회 우승 경험이 없는 ‘무관’의 선수였다. 2008년 US오픈, 2010·2011호주오픈에서 결승까지 올랐지만 우승과 인연을 맺지는 못했다. 1개월여 전 열린 웍블던대회에서도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번 올림픽 우승으로 머레이는 그림자처럼 따라돌던 ‘무관’ 딱지를 뽐낼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머레이는 페테러와의 승부에서도 설욕에 성공했다. 머레이는 올해 웍블던대회 결승에서 조국 팬들의 열광적 성원을 등에 업고 우승에 도전했지만 1-3(6-4 5-7 3-6 4-6)으로 역전패해 페테러에게 우승컵을 내줬다. 1936년 프레드 페리 이후 자국선수의 웍블던 우승을 염원했던 영국 팬들의 기대도 물거품이 됐다.

“아픔을 되풀이할 수 없다”는 머레이의 의지는 이날 올림픽 결승에서 잘 드러났다. 그는 페테러의 강서브에 환상적인 스트로크로 맞서면서 일방적 경기를 펼쳤다. 서브 에이스로 마지막 득점을 장식한 머레이는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다. 한 달 전 홀린 아쉬움의 눈물이 환희의 눈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머



영국 앤디 머레이(25)가 5일(한국시간) 웍블던 올잉글랜드클럽에서 열린 2012런던올림픽 테니스 남자단식 결승에서 스위스 로저 페테러를 상대로 금메달을 따낸 뒤 환호하는 홈팬들에게 팔목밴드를 던져주고 있다.

런던 | 로이터연합뉴스

레이는 “내 인생 최고의 승리다. 이번 승리는 웍블던 패배를 완벽하게 털어버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이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올잉글랜드 클럽에 모인 영국 팬들도 감격스럽게는 마찬가지. 영국은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 조쉬아 리치가 금메달을 획득한 이후 104년 만에 올림픽 남자단식 챔피언을 배

출했다. 영국 팬들은 104년 만에 탄생한 올림픽 챔피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머레이는 남자단식에 이어 벌어진 혼합복식 결승에서도 로라 톱슨과 함께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 이번 올림픽에서만 2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지옥 기자 stop@donga.com 트위터 @stopwook15

■올림픽 이모저모

미국흑인 첫 체조 선수 가브리엘 모 파산신청



●...여자 기체체조 개인 종합에서 미국 흑인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목에 건 가브리엘 더글러스(17·사진)의 어머니가 올해 초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AP통신이 6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글러스의 어머니 내탈리 호킨스는 올 1월 버지니아 지방법원에 채무 상환 기간을 늦춰줄 것과 채무를 감면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은 호킨스의 파산 신청을 받아들여 3월 5일에 걸쳐 매달 400달러(약 45만원)씩 빚을 갚으라는 결정을 내렸다. 호킨스는 남편과 이혼한 뒤 비싼 훈련비를 홀로 감당해내며 딸 더글러스를 유명 체조학원에 보내는 등 뒷바라지를 해왔다.

37세 독일 체조선수 옥사나 은퇴시사



●...37살 주부 체조선수 옥사나 추소비티나(독일·사진)가 평범한 주부로 돌아간다. 추소비티나는 6일(한국시간) 노스그리니치 아레나에서 열린 런던올림픽 기체체조 도마 결선 2차시기를 끝낸 뒤 은퇴 의사를 밝혔다. 비록 전체 5위에 그쳤지만 관중들은 20년 동안 올림픽에 출전한 그녀의 열정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1975년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추소비티나는 1992바르셀로나올림픽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땀고, 2008베이징올림픽에는 33살의 나이로 은메달(도마)을 따내는 기염을 토하며 여자 체조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왔다.

육상 100m트랙에 물병 던진 관객 체포

●...한 관객이 올림픽 육상 100m 트랙 위에 물병을 집어던졌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런던 경찰국은 6일(한국시간) 런던올림픽스타디움에서 육상 경기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남자 100m 결승이 시작되기 직전 물병을 던진 혐의(공공질서 방해 행위)로 체포됐으며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행히 트랙에 떨어진 물병은 급세 치워졌다.



런던올림픽 기록실

(6일 22시 현재)

육상 ●100m 허들 여자부 1라운드 4조=① 아니트(터키), ② 하퍼(미국), ③ 갈리츠카(러시아), ④ 정혜민(한국, 13초48, 예선 탈락)

사이클 ●남자 유니온 최종 종합 순위=① 한센(덴마크), ② 코과드(프랑스), ③ 클린시(영국), ④ 조호성(한국) ●남자 1km 유니온 타임트라이얼=① 클린시(영국), ② 한센(덴마크), ③ 오서(호주), ④ 조호성(한국) ●남자 15km 유니온 스크래치 레이스=① 벨(캐나다), ② 로비라(스페인), ③ 코과드(프랑스), ④ 조호성(한국) ●스프린트 여자부 1라운드 5조=① 파나리나(벨라루스), ② 이혜진(한국) ●스프린트 여자부 1라운드 패자부활전 2조=① 설리반(캐나다), ② 이혜진(한국), ③ 카요노(일본)

하키 ●남자부 B조=한국(2승2패) 4-1 인도(4패)

수영 ●싱크로나이즈 스위밍 여자 듀엣 테크니컬 루틴=① 이수현, 로마시나(러시아), ② 황혜천, 류오우(중국), ③ 발레스테로, 파시(스페인), ④ 박현선, 박현해(한국, 86.700)

요트 ●470급 남자부 7경주=① 페이스, 비델(영국), ② 칼라브레세, 푸엔테(아르헨티나), ③ 벨체, 페이제(호주), (20) 박건우, 조성민(한국)

사격 ●50m 소총 3자세 남자부 예선전=① 캄프리아니(이탈리아), ② 에르소(미국), ③ 그라프(프랑스), ④ 김준현(한국, 1171점, 결선 진출), ⑤ 한진섭(한국, 1168점, 예선 탈락)

탁구 ●남자 단체전 8강=한국 3-2 포르투갈

●여자 단체전 준결승전=중국 3-0 한국

역도 ●+75kg급 여자부 A조=① 저우루루(중국), ② 카시리나(러시아), ③ 크루슈미안(아르메니아), ④ 정미란(한국, 125+164=289kg)

레슬링 ●-55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부 동메달결정전=세메노프(러시아) 2-0 최규진(한국) ●-55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부 준결승전=바이라모프(아제르바이잔) 2-0 최규진(한국) ●-60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부 16강=정지현(한국) 2-0 루곤스(쿠바) ●-84kg급 그레코로만형 남자부 예선전=흐루스타노비치(오스트리아) 2-0 이세열(한국)

중국 우민사, 올림픽 다이빙 최다 메달 타이



중국 여자 다이빙의 우민사(27·사진)가 올림픽 다이빙 최다 메달 타이 기록을 세웠다. 우민사는 6일(한국시간)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다이빙 여자 3m 스프링보드 개인 부문에서 414.00점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우민사는 “완벽에 가까운 다이빙을 선보였다고 생각한다. 이날을 위해 오랫동안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스프링보드 싱크로 부문에서 금메달을 따며 올림픽 다이빙 3연패라는 최초의 위업을 달성한 우민사는 이날 우승으로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이로써 우민사는 올림픽에서 총 6개의 메달(금4·은1·동1)을 획득해 동료 귀장징(금4·은2)이 세운 다이빙 최다 메달 기록과 타이를 이뤘다.

■올림픽 말말말

●“육신의 목에 걸린 금메달만 금메달이 아닙니다. 영혼의 목에 걸린 금메달이 진짜 금메달입니다. 아 장미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국훈에 진심으로 아름다운 금메달을 걸어준 여인,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소셜계 이외수 트위터)

●“가장 아름다운 챔피언의 마음을 뽐낸다면 장미란일거라 생각했다. ‘제가 부끄럽지 않은 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말, 멋져요. 우리의 기대는 당신의 바벨을 너무 무겁게 했어요.” (트위터 @hbn***)

●“역대 올림픽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수. 폭발

적인 선수. 괴물 그 자체. ‘전속력’ 낸 볼트를 추월할 자는 지구에 없었다.” (트위터 @gn***)

●“올림픽대표 18명 발표했을 때 K리그를 보던 분들은 고개를 끄덕였음. K리그에 잠재된 무림고수 많음. 지켜봐 주삼. 박중우 윤성영 김창수 정성록 이범영 오재석” (트위터 @mon***)